

미얀마 불교 이야기

9. 일제의 미얀마 점령과 미얀마 독립

미얀마 청년불교도연맹(YMBA)은 1917년과 1919년 미얀마의 자치권을 얻기 위해 인도와 영국에 가서 활동하였으나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미얀마 민족주의 운동은 불교가 앞장 선 종교적 투쟁보다는 종교와 분리된 정치적 투쟁으로 점차 선회했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아웅 산'을 비롯한 미얀마 독립운동가들은 영국식민정부에 무력투쟁을 결의한다.

미얀마 독립운동가들은 당시 영국을 포함한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일본의 지원을 기대했다.

일본은 미얀마에 스즈키 케이지(鈴木敬司, 1897~1967)를 파견했다. 그는 아웅 산(Aung San, 1915~1947) 등과 접촉해 미얀마 독립운동가들을 중국 남쪽 하이난도(海南島)로 탈출시키는데 성공한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아웅 산이 이끄는 미얀마 독립운동군은 수많은 미얀마 인들이 참가한다.

일본 미얀마 종속 아웅 드러내

1942년 3월부터 미얀마는 일본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후 이상을 강조했다. 훈련 당시 미얀마 독립을 약속받았던 아웅 산 등 미얀마 독립운동가들은 스즈키 케이지의 송환 이후 독립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일본정부와 노선을 달리한다.

이후 일본군은 3년간 미얀마를 통치한다. 일본군은 1942년부터 미얀마를 시작으로 서부아시아 점령을 가속화하기 위해 태국과 미얀마 간 전락물자 수송을 위한 철도 공사에 들어갔다.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란 구호 속에 미얀마를 종속시키려는 일본의 의도를 파악한 아웅 산은 영국과 다시 손을 잡는다.

1945년 3월 27일 미얀마군과 영국군은 일본군을 미얀마에서 몰아낸다. 이 날을 미얀마 국민들은 '국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미얀마의 독립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영국이 다시 주인행세를 하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립의 공식절차를 앞두고 내각 구성에 힘을 기울이던 아웅 산은 완전한 독립을 불과 6개월 앞둔 1947년 7월 19일, 회의 중 암살당한다.

미얀마에서는 독립기념일을 일본군을 몰아낸 1945년 3월 27일이 아닌 1948년 1월 4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독립 이후에도 미얀마 인들은 일본을 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독립과정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긴 했지만 두 나라가 원수지간이 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미얀마 인들은 스즈키 케이지에 대해 높게 평가했는데 2차 대전이 끝난 뒤 양군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스즈키 케이지가 전범으로 영국 법정에 회부되려 할 때 아웅 산은 "그는 미얀마 독립의 은인으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며 반발하며 그의 석방을 돕기도 했다.

불교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 나서

일본군이 미얀마를 점령하고 있던 기간 일본은 미얀마 내 일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친불교 정

불교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조화 꿈 꾸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당시 서부아시아 침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놓은 '죽음의 철도'. 수십만 명이 공사 도중 목숨을 잃었다. 이 내용을 주제로 영화 '콰이강의 다리'가 만들어졌다.



미얀마 지폐에 새겨져있는 독립운동 영웅 아웅 산.



미얀마 국민선거를 통해 선출된 초대수상 우 누.

英·日 틈바구니서 독립 이뤄  
아웅 산 '정교분리가 종교 순수 지경'  
초대 수상 우 누, 불교 사회주의 주장  
불교 기반한 평화 및 화합 연대 강조

책을 펼쳤다. 도쿄에서 열린 '대동아 불교대회(Greater East Asia Buddhist Conference)'에 미얀마 불교도를 초청하는 한편 미얀마와 같은 불교국임을 주지시키기 위해 양군의 새 파고다를 건립하여 불사리를 봉안하기도 했다.

아웅 산은 이에 미얀마 정치와 불교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940년 아웅 산은 불교를 앞세운 민족주의를 비판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1947년 아웅 산의 암살로 30인 지사 중 네윈이 군 최고직에 오른다. 1948년 독립과 동시에 '버마연방 공화국'이 출범했는데 우 누(U Nu)가 수상으로 선출됐으며 네윈이 부수상으로 임명됐다.

우 누는 네 윈과 같은 '30인 지사' 일원이 아니지만 독립 후 최초의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수상에 선출됐다.

우 누를 중심으로 하는 '버마연방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불교사회주의와 불교 국교화였다.

독립 후 미얀마가 불교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 누의 불교관 등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 누는 독실한 불자였다. 우 누는 모든 사회문제가 불교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우 누가 불교를 중시한 이유는 해방 이후 미얀마 사회상황과도 맞닿아있었다. 식민지배기간 외국인의 경제적 영향이 강했던 미얀마는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갔는데 그는 사회주의를 불교적 입장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주의자들은 엄격한 차이가 있었다. 우 누는 사회주의도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 누는 초대 수상으로서 불교철학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접목해 미얀마 연방을 이끌어고 노력했다.

우누의 경제 자문관을 맡은 경제학자 E.F.슈마허(1911~1978)는 1955년 이란 미얀마에서 소득수준은 낮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책을 남긴다.

우누는 모든 국민은 연방이 분열되지 않도록 분열 없는 연대의식으로 결속과 자치권을 유지한다.

셋째, 모든 국민은 진실을 가져오는 과업에 참여해 평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넷째, 미얀마 현대화를 완성하고 민주화된 나라를 확립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 나은 봉사를 경주한다.

이를 통해 미얀마 연방정부가 독립 이후 현재까지 당면한 사회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이해할 수 있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금) 소식

평화통일사

대지 총 2천평, 대웅전 1채, 관음전 1채, 큰방 (부엌,화장실) 1채, 객실방 2채 1억 5천만원에 양도합니다. 인연을 기다립니다.

※ 농사 지을 수 있는 옥토(밭) 2천평 있음



- ◎ 위치 : 임진각 부근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 법회 : 매주말 군장병 정기법회
◎ 교통 : 자유로, 통일로 바로 연결



[문의] 010-9415-5818 스님 직접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주소\_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